



KFA 리그

2013년 U리그 챔피언 트로피의 향방은?

영남대 vs 홍익대... 우승 두고 '정면충돌'

영남대, 지난해 4강 탈락 아픔 털까... 최초 비수도권 우승 노려
홍익대, 연세대 최다 우승(2회)과 타이 달성하며 명문 도약할까?
22일 오후 1시 영남대 운동장에서 '빅뱅'... MBC TV LIVE

우승컵까지 단 한 경기만이 남았다.

U리그 결승전 대진이 확정됐다. 오는 22일 오후 1시 영남대 운동장에서 영남대와 홍익대가 '2013 카페베네 U리그 대학선수권 챔피언십' 최후의 대결을 펼친다. (MBC TV 중계)

홈에서 결승전을 개최하게 된 영남대는 U리그 챔피언십 첫 우승을 기필코 안방에서 이루겠다는 각오다. 반면 홍익대는 지난 2년 전 울산대 원정에서 3-0 완승을 거두며 우승한 기억을 되살려 다시 한번 챔피언에 오른다는 다짐이다.

두 팀은 결승전까지 전승을 기록했다. 우선 영남대는 이번 챔피언십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평가대로 첫 경기에서 초당대에 2-0 완승을 거뒀다. 조별리그 2차전에서 전주대에 고전하며 승부차기 접전을 펼쳤지만

끝내 승리하며 16강에 안착했다.

조별리그를 통과한 영남대는 거침이 없었다. 고비로 평가받던 16강전 광주대와 경기에서 1-0 승, 8강전 단국대에 3-0 완승, 준결승전에선 정신력으로 뭉친 동아대를 3-1로 무너뜨리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홍익대는 극적인 승리의 연속이었다. 조별리그에서 전주대에 1-0 승, 초당대에 3-1 승리로 영남대를 제치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홍익대 연출의 '축구 드라마'는 토너먼트전에서 빛났다.

아주대와 16강전에서 승부차기(3PSO2) 끝에 승리, 8강전 성균관대에 1-0 신승, 준결승 호남대전에서는 후반 종료 직전 김학찬의 동점골로 기사회생하여 승부차기(5PSO4)로 승리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오히려 팀이 뭉친 사례다.

두 팀 미드필드진의 맞대결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영남대는 '후방 플레이메이커' 손준호의 발끝에서 빌드업(Build UP)이 이뤄진다. 바르셀로나를 연상케 하는 패싱게임과 경기 지배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반면 홍익대는 중원에서 날카로운 왼발을 자랑하는 김학찬과 활동량으로 경기장을 누비는 홍태곤 콤비가 있다. 라인 간격을 최대한으로 좁힌, 영남대 못지않은 콤팩트 축구도 홍익대의 무기다.

두 팀은 각각 새로운 기록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영남대가 우승하면 U리그 챔피언십 최초 비수도권 팀의 우승이라는 새 역사가 만들어지고, 홍익대가 우승하면 연세대가 단독으로 보유 중인 최다 우승(2회)과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된다.

/김동현 기자



영남대(위)와 홍익대가 2013년 U리그 정상을 놓고 격돌한다. 우승컵의 향방은 어디로 향할까? // 박성준 기자

올 시즌 왕중왕컵 트로피의 주인공은?

포항 U-18팀, 사상 첫 왕중왕전 우승!

결승전까지 무려 '20골' 터뜨려... 결승서 전북 U-18팀에 3-1 완승!

매년 우승 후보였지만 인연 없었던 왕중왕전, 막강한 화력 앞세워 마침내 '결실'



포항 U-18팀(포항제철고)이 전북 U-18팀(전주영생고)을 꺾고 고교축구 최정상에 올라섰다.

포항 U-18팀은 지난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3 대교눈높이 전국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전북 U-18팀을 3-1로 꺾고 팀 사상 첫 왕중왕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포항 U-18팀은 왕중왕전 6경기 동안 무려 20골을 터뜨리는 압도적인 화력을 과시했고 이는 우승으로 이어졌다.

준결승까지 9골을 성공시킨 포항U-18팀의 주포 황희찬이 전반 4분 만에 팀의 첫 골을 성공시켰다. 상대 수비에 맞고 흐른 공을 문전 앞에서 감각적인 오른발 아웃사이드 슈팅으로 밀어 넣은 것. 일찌감치 기선을 제압

한 포항 U-18팀은 선배들처럼 특유의 패싱 플레이 '스틸타카'를 선보이며 경기를 지배했다. 반면 전북 U-18팀은 포항 U-18팀의 강력한 압박과 빠른 공수전환에 힘을 쓰지 못했다. 주장 조요셉은 중원에서 분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챌린지리그 득점왕 출신 김신 역시 상대의 집중 견제에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전반전은 1-0 포항 U-18팀이 앞선 채 종료됐다. 포항 U-18팀이 빠른 패싱 플레이 위주였다면, 전북 U-18팀은 저돌적인 돌파와



롱패스가 조화를 이룬 플레이였다. 양 팀의 다른 색깔이 확연히 드러난 전반전이었다.

하프타임을 통해 전열을 재정비한 전북 U-18팀은 황민웅의 중거리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다. 특히 측면 날개 김신-나성은의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북 U-18팀은 후반 15분 의외의 실점을 내주며 무릎을 꿇어야 했다. 포항 U-18팀의 황희찬이 문전을 향해 찰려준 공이 수비수 서준영의 발에 맞고 골대로 흐르고 만 것.

점수 차를 두 골로 벌린 포항 U-18팀은 주장 이광혁을 중심으로 공격의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다. 이광혁은 중원에서 빠른 발을 통한 재치 넘치는 돌파를 선보이며 이날 가장 빼어난 활약을 선보였다. 그러나 전북 U-18팀의 저력 역시 만만치 않았다. 후반 25분 주포 김신이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추격골을 성공시킨 것.

그러나 포항 U-18팀은 종료 1분전 교체로 들어간 김태호가 팀의 세 번째 골을 터뜨렸다. 썩기골이었다. 김태훈은 수비 세 명 앞에서 침착한 슈팅으로 골을 성공시켰다. 포항 U-18팀은 승리를 예감한 듯 두 팔을 번쩍 추켜 올리며 기쁨을 만끽했고, 경기는 3-1 포항 U-18팀의 승리로 끝이 났다.

/ 송창우 기자

승부차기 없었던 포항 U-18팀 '완벽한 우승' 일궈내다

포항 U-18팀은 3년 연속 챌린지리그 정상에 오르며 왕중왕전 무대를 밟았다. 그러나 사실 포항 U-18팀보다는 전남고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 2년간 일찌감치 탈락했던 전례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예측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달랐다. 특히 왕중왕전 무대에서 보여준 그들의 경기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대가 누구든 최소한 두 골 이상을 만들어냈다. 경기당 3골이 넘는 평균 득점이 사상 첫 우승의 원동력이 됐다.

광명공고를 5-0으로 대파한 첫 경기부터 포항 U-18팀의 화력은 왕중왕전 무대를 흔들었다. 이어 개최 지역 팀인 거제고와 대륜고, 동래고를 연달아 꺾으며 승승장구했다.

중경고를 만난 4강전에서는 집중력도 돋보였다. 선취골을 내주고도 후반 두 골을 성공시키며 역전승을 거뒀다. 결승전에서 만난 전북 U-18팀마저 3-1로 완파한 포항 U-18팀은 사상 처음으로 '승부차기' 없이 우승을 차지하며 완벽한 우승을 일궈냈다. / 김명석 기자

'승장' 이창원 감독 "아무도 이루지 못한 역사, 우리가 썼다"

"팀 사상 첫 우승뿐만 아니라 챌린지리그 우승팀이 왕중왕전에서 우승한 것도 처음입니다. 새 역사를 썼다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리자 포항 U-18팀 이창원 감독은 두 주먹을 하늘 위로 높게 들었다.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역사가 쓰여 지는 순간이었다. 챌린지리그 3년 연속 우승에 이어 역대 최다 득점으로 왕중왕전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2011년 팀의 지휘봉을 잡은 순간부터 포항유스의 '황금시대'를 이끌고 있는 이창원 감독은 불과 3년 만에 커리어에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큰 표정 변화 없이 덩덤한 모습이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이 있었다. 특히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컸다.

"지금껏 같은 라인업으로 연속해서 경기를 치른 적이 없는데 왕중왕전에서는 8강부터 결승까지 같은 선수들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멤버는 누구를 상대하던 자신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가치를 큰 무대에서 증명해줘 기특할 따름입니다."

'리틀스틸타카'를 선보였던 포항 U-18팀은 결승전 전략으로 미드필드 플레이를 다소 수정했다. 공격진으로 한번에 붙이는 롱패스 비중을 높였다. 결과적으로 '묘수'는 통했다. 전반 4분 황희찬의 득점 상황이 전략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승기를 먼저 잡았다.

"올 시즌 첫 패배를 안겨준 전북 U-18팀은 까다로운 상대였죠. 그래서 특유의 점유율 축구를 조금 포기하는 전략으로 나섰습니다. 선수들에게 한 블록을 넘어서는 패스를 많이 시도하라고 주문했어요. 그 점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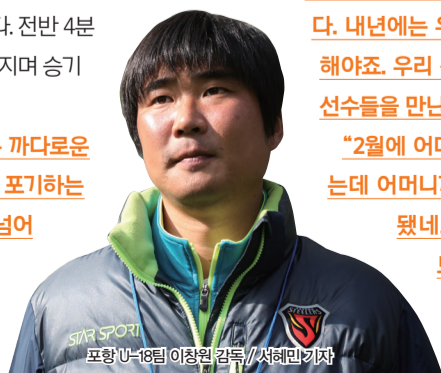
진지하게 얘기하던 이창원 감독은 승리

세리머니를 하는 선수들을 보고 그제야 웃었다. 이 감독은 "어머니 산소에 우승컵 두 개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환하게 웃었다.

"이 순간이 영예롭고 기쁘지만 한편으로 초심이 떠오릅니다. 내년에는 우리를 더 견제할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우리 선수들, 참 대단한 놈들입니다. 저 대단한 선수들을 만난 저는 행복한 감독이죠."

"2월에 어머니를 하늘로 보냈어요. 시작이 좋지 못했는데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서 그런지 행복하게 마무리됐네요. 빨리 어머니께 우승 트로피를 가져다 드리고 싶습니다. 트로피는 하늘에서도 잘 보일 것 같네요."

/ 김한별 기자



포항 U-18팀 이창원 감독 / 사해민 기자

‘포항 U-18팀의 처음과 끝’

수문장 강현무 & MVP 황희찬



골키퍼상을 수상한 강현무



특점상·MVP를 차지한 황희찬

승리의 4-2-3-1은 상암에서도 강력했다. 그중 골키퍼 강현무와 공격수 황희찬은 팀의 처음과 끝에서 ‘막는 자’와 ‘넣는 자’ 역할을 완벽히 소화했다.

‘강현무’, 슬럼프 딛고 ‘NO.1’ 골키퍼로 거듭나다

우승 소감을 묻는 질문에 강현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현 골키퍼 코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읊었다.

“가장 먼저 최현 코치님과 감독님이 생각납니다. 1,2학년 시절 슬럼프가 심했습니다. 경기를 전혀 뛰지 못했고 축구를 포기하는 생각까지 했는데, 저를 끝까지 잡아준 선생님들께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강현무의 성실함과 타고난 순발력을 높게 산 포항 U-18팀 코칭스태프는 올 시즌 그에게 주전 골키퍼의 상징인 등번호 ‘1번’을 건넸다. 긴 슬럼프를 털고 비상할 것을 믿는다는 무언의 응원이었다.

강현무는 믿음에 부응했다. 챌린지리그 13경기와 왕중왕전 전 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팀의 주전 골키퍼로 맹활약했다. 대망의 왕중왕전 결승전에서는 세 차례 결정적 선방을 선보이며 팀을 우승으로 견인했다. 그는 ‘최우수 골키퍼상’을 수상하며 아마추어 축구선수를 명예롭게 졸업했다.

“내년에는 포항 스틸러스에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프로에 가서도 고교시절을 항상 기억할 거예요. 하루하루 죽을 각오로 노력했던 지난 3년처럼 악착같이 버틸 겁니다.”

‘황희찬’, 고교무대를 삼켜버린 2학년 공격수

황희찬은 이미 두 개의 왕중왕전 우승 메달을 가지고 있었다. 5년 전 신곡초 소속으로 ‘2008 동원컵 전국유소년축구리그 왕중왕전’에서 첫 우승을 경험했고 2년 전 포항 U-15팀 소속으로 두 번째 우승을 이뤘다.

그리고 마침내 ‘2013 대교눈높이 전국 고등리그 왕중왕전’ 우승으로 초-중-고 왕중왕전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승 메달뿐 아니라 최우수선수상과 득점상까지 휩쓸었다.

개인 득점에 관한 모든 기록을 갱신하기도 했다. 8강전에서 이미 이종호(전남)의 ‘2학년’ 득점왕 타이틀을 가져왔고, 총 6경기 10득점으로 사상 첫 두 자리 수 개인 득점을 돌파했다. 역대 최다 개인 득점 타이틀이었다.

“개인상은 주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입니다. 양손의 트로피는 동료와 코칭스태프들이 준 도움의 표식이에요. 저는 그저 2년 전보다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년 전에 비해 ‘멘탈’이 가장 많이 성숙했다는 이 ‘언빌리버블한 열여덟 골잡이’가 다시 축구화 끈을 매는 이유는 하나다. 이전의 ‘나’를 뛰어 넘기 위해서다. 유소년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는 황희찬의 내년이 벌써부터 기대되는 이유다.

/글 김한별 기자·사진 서혜민 기자

김경량 감독 “우승과 다름없는 기쁨, 선수들에게 고맙다”



전북 U-18팀 김경량 감독 / 박성준 기자

“저도 사람인지라... 아쉽기도 하고 허전하네요.”

포항 U-18팀의 우승 세리머니가 펼쳐지던 현장이었다. 전북 U-18팀의 김경량 감독은 씩씩함을 나타내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어렵게 왕중왕전 결승 무대에 섰으나 준우승,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그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보여준 것으로 만족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오면 분명 잘해낼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좋은 경기를 해준 선수들에게 고맙습니다. 우승과 다름없는 기쁨을 안겨줬어요.”

김신이라는 걸출한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상 전북 U-18팀의 전력은 ‘우승 후보감’에 속하지 않았다. 얇은 선수층 탓에 리그에서도 겨우 왕중왕전 진출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전북 U-18팀의 저력은 단판 승부에서 유감없이 발휘됐다.

“돌이켜봤을 때 부경고와의 4강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지난해 0-3으로 졌던 경기가 있어요. 그때 선수들에게 ‘한번 졌던 팀에게 또 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번에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자’고 동기 부여를 했죠. 그리고 똑같은 스코어로 이겨서 통쾌했습니다. 내년에는 포항 U-18팀에게 설욕해야죠.”

이미 챌린지리그에서 상대했을 때보다 더욱 진화한 포항 U-18팀이었다. 주위에서도 포항 U-18팀이 더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들렸다. 그러나 김경량 감독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선수들을 상대 진영으로 전진 배치하며 공격적으로 맞섰다. 비록 스코어는 벌어졌지만 경기 내용은 대등했다. 또 다른 성과도 있었다.

“같은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라 개인 기량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두 가지 포지션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전술 변화가 용이했죠. 결승전 전날에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즐기라’고 했는데 잘해줬습니다.”

“이번 왕중왕전에서 1학년 선수 세 명의 성장세가 돋보였어요. 박정호, 한범서 그리고 결승전에 투입은 못했지만 유정규 선수가 꾸준히 활약하며 내년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다른 저학년 선수들도 마찬가지로요. 팀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 올 시즌 가장 큰 결실인 것 같습니다.”

/윤거일 기자

‘2013 대교눈높이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시상 내역

- 우승 : 포항 U-18팀(포항제철고)
- 준우승 : 전북 U-18팀(전주영생고)
- 3위 : 부산 부경고, 서울 중경고
- 페어플레이상 : 부산 부경고
- 최우수선수상 : 황희찬(포항 U-18팀)
- 우수선수상 : 김신(전북 U-18팀)
- 득점상 : 황희찬(포항 U-18팀)
- 수비상 : 조요셉(전북 U-18팀)
- GK상 : 강현무(포항 U-18팀)
- 최우수지도자상 : 이창원 감독(포항 U-18팀)
- 최우수심판상 : 최재현

‘승부차기 대접전’ 펼쳐진 결승전 울산 U-15팀, 인천 U-15팀 꺾고 첫 우승!

연장 후반 막판 육근혁 극적인 동점골... 승부차기에서는 문정인 GK 선방쇼!
울산 U-15팀, 올해 출전한 4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 전관왕 위업 달성



울산 U-15팀이 2013년 중등리그 최강의 팀으로 우뚝 섰다



그야말로 ‘짜릿한’ 우승이었다. 울산 U-15팀(현대중)이 승부차기 대접전 끝에 인

천 U-15팀(광성중)을 꺾고 중등리그 최강의 팀으로 우뚝 섰다.

울산 U-15팀은 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3 대교눈높이 전국 중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접전 끝에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다. 울산 U-15팀은 이날 승리로 2월 춘계연맹전, 5월 전국소년체전, 7월 무학기에 이어 또 한번 우승컵을 차지하며 올 시즌 전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경기는 전체적으로 인천 U-15팀이 주도했다. 그러나 전반 35분 결정적인 세 차례의 기회를 놓쳤다. 골대를 두 번 연속 강타했다. 김진야의 오른발 프리킥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문전에 있던 조백상이 재차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또 한번 크로스를 맞았다. 이어 추민열의 중거리 슈팅은 골대 위를 살짝 넘어갔다.

후반에도 양상은 비슷했다. 결정적인 기회는 인천 U-15팀이 더 많이 만들었지만 결정력이 아쉬웠다. 그러던 울산 U-15팀은 경기 막판에 대반격을 가했다. 그러나 오세훈의 헤딩과 이상현의 슈팅이 문정인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결국 두 팀의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연장전에 돌입하자 0의 균형이 깨졌다. 연장 전반 1분, 추민열의 크로스를 김보섭이 헤딩으로 연결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인천 U-15팀의 김보섭은 특유의 기도 세리머니를 펼치며 선취골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경기 종료를 2분 앞둔 시점에 울산 U-15팀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졌다. 이형경의 슈팅이 수비에 맞고 흐르자 문전에 있던 육근혁이 마무리,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켰다. 결국 왕중왕전 트로피의 주인공은 승부차기에서 가려지게 됐다.

승부차기는 양 팀 골키퍼의 선방쇼가 빛났다. 첫 번째 키커였던 김진야의 슈팅은 울산 U-15팀 문정인 골키퍼의 손을 맞고 골대를 튕겨 나왔다. 그리고 이상현의 슈팅은 인천 U-15팀 민성준 골키퍼가 막아냈다. 2-2로 맞선 양 팀의 네 번째 기회에서는 양 팀 모두의 슈팅이 골대를 외면했다.

마지막 슈팅 기회에서도 골키퍼들이 맹활약을 펼쳤다. 조백상의 다섯 번째 킥은 문정인이 선방하며 울산 U-15팀이 승기를 잡았다. 그러나 울산 U-15팀의 마지막 키커였던 육근혁의 슈팅을 민성준 골키퍼가 막아냈다.

결국 승부는 여섯 번째 키커에서 갈렸다. 인천 U-15팀의 장우영의 슈팅은 문정인 골키퍼가 몸을 날려 막아냈다. 이어 최지묵이 팀의 우승을 확정 짓는 마지막 킥을 성공시켰다. 결국 ‘승부차기 대접전’을 펼친 양 팀의 승부는 울산 U-15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글 김명석 기자·사진 홍석균 기자

‘챔피언’ 울산 U-15팀의 파란만장했던 하루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전했지만 우리 쪽으로 운이 따랐던 것 같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경기였다. 그러나 결국 우승컵을 차지한 팀은 울산 U-15팀이었다.

이날 울산 U-15팀은 경기 초반부터 인천의 강한 압박에 어쩔 줄 몰랐다. 울산 이형경은 물론 교체 투입된 김규형, 홍현석까지 발이 꼬공 뭉였다. 예상치 못한 인천의 공세에 김 감독 역시 놀란 눈치였다.

“전날 훈련할 때만 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강한 정신력과 투지에 압도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드와 기술이 좋은 김규형과 미드필더로서 경기 조율을 맡고 있는 홍현석을 기용했는데 기본적으로 뛰는 양에서 밀리다 보니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반 끝나고 선수들에게도 말했어요. 상대보다 더 뛰어야 패싱플레이가 살아날 수 있다, 안 뛰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 후반에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니다.”

후반전 울산은 주장 육근혁을 중앙 수비수로 내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꾀했다. 그러나 정규시간 80분을 보내고 연장전을 시작하자마자 인천 김보섭에게 골을 허용하며 패색이 짙어졌다.

그러던 연장 후반 8분 울산 육근혁이 천금 같은 동점골을 선사했다. 김 감독은 실점 이후 육근혁을 다시 전방으로 올리는 승부수를 띄웠고, 이는 적중했다. 문전에서 이형경의 슈팅이 상대 수비수를 맞고 굴절되자 이를 육근혁이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결국 승리의 여신은 울산의 손을 들어줬다. 양 팀은 골키퍼의 눈부신 활약으로 잇따라 실축했지만 울산 골키퍼 문정인의 세 차례 선방으로 인천을 제압했다. 이로써 울산은 전관왕 달성으로 그 기쁨을 배로 누렸다.

“실점 후에도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육근혁 선수를 전방에 올렸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무패’로 전국대회 전관왕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고등학교 가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기량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보미 기자



울산 U-15팀 김도근 감독/강일혁 기자

‘전관왕’ 마지막 퍼즐 찾은 울산 U-15팀

‘전관왕’. 올 시즌 울산 U-15팀이 중등리그에서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주는 단어다. 울산 U-15팀은 마지막 퍼즐이었던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올해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올해 울산 U-15팀(현대중)은 2월 춘계연맹전, 5월 소년체전, 7월 무학기에서 연달아 우승했다. 울산 권역리그에서도 11승 1무, 무패로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해 왕중왕전 무대를 밟았다. 이러한 기세 속에 왕중왕전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7명의 지도자 중 무려 53명으로부터 우승 후보로 ‘선택’을 받았다.

왕중왕전에서도 그들의 기세는 멈출 줄 몰랐다. 용인 레이번스, 포항 U-15팀(포철중), 보인중, 대화중, 수원 U-15팀(매탄중)을 차례로 누르며 결승에 올랐다. 인천 U-15팀(광성중)과의 결승전에서는 연장 후반 직전에 터진 육근혁의 동점골과 문정인 골키퍼의 승부차기에서의 대활약을 바탕으로 우승컵을 들었다.

/김명석 기자

“아! 마지막 2분!” 인천 U-15팀, 마지막을 버티지 못했다

‘최강의 팀’ 울산 U-15팀 맞아 분전... 종료 2분 앞두고 극적인 동점골 허용
우성용 감독 “마지막에 못 버틴 것 안타까워... 그래도 명승부 펼쳐준 선수들 대견”



인천 U-15팀이 마지막 2분을 버티지 못하고 우승을 놓쳤다

연장 후반 8분, 주심은 틈틈이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고 인천 U-15팀(광성중) 벤치에서는 “한 골 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었다. 인천 U-15팀이 ‘2013 대교 눈높이 전국 중등리그 왕중왕전’의 우승컵을 들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2분이었다.

그때 울산 U-15팀 육근혁의 동점골이 터졌다. 울산은 환호했고, 인천은 안타까워했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마지막에 웃은 쪽은 울산 U-15팀이었다. 인천 U-15팀의 우승 꿈은 그렇게 사라졌다. 우성용 감독은 우승을 놓친 아쉬움과 큰 대회를 끝낸 후련함이 섞인 목소리로 왕중왕전을 끝마친 소감을 전했다.

“아직 선수들이 어리다 보니 경기 운영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바짝 압박해야 할 순간에 지키려고만 하다가 아쉽게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여름에 전국대회를 우승하면서 선수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만큼 자신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2분을 못 버틴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하 우성용 감독

왕중왕전 결승답게 치열한 명승부였다. 특히 인천 U-15팀의 분전은 모든 이의 예상을 깨트렸다. 인천 U-15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드필드에서 더 많이 뛰며 점유율을 높였고, 울산 U-15팀의 ‘고공 폭



인천 U-15팀 우성용 감독

격’ 이형경도 잘 막아냈다. 울산 U-15팀의 동점골이 나온 연장 후반 8분까지 인천 U-15팀은 우승컵을 들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경기력을 뽐냈다. ‘최고의 상대’를 맞아 최선을 다해 준비한 인천 U-15팀의 결과물이었다.

“울산 U-15팀은 올해 중학교에서 최강의 팀이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상대 팀에 키가 큰 이형경 선수도 있고, 측면이 빠른 선수도 있어 조직력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오늘 선수들이 그 부분에서 참 잘해줬습니다.”

우성용 감독은 마지막으로 고생한 인천 U-15팀 선수들과, 결승 상대였던 울산 U-15팀 선수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선수들이 잘 성장해서 좋은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올해 팀의 선수층이 얇은데도 전국대회와 왕중왕전에서 매 경기 결승이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잘 싸워줬습니다. 마지막 울산 U-15팀과의 결승전에서 명승부를 펼쳐준 선수들이 대견스럽습니다. 울산 U-15팀 그리고 저희 선수들 모두 지금은 배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많이 배워 한국축구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글 김단 기자·사진 강일혁 기자

울산 U-15팀 GK 문정인의 ‘명품 선방쇼’



울산 U-15팀의 우승을 이끈 문정인 골키퍼

문정인의 ‘우승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

울산 U-15팀(현대중)의 ‘거미손’ 문정인은 9일 ‘2013 대교 눈높이 중등 축구리그 결승전’ 승부차기에서 맹활약하며 팀 우승의 일등공신이 됐다. 문정인은 승부차기를 포함해 경기 내내 선방쇼를 선보였고, 결국 상대의 마지막 키커였던 정우영의 킥까지 막아내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전날 우승하는 꿈을 꿴습니다. 꿈에서는 별 감흥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렇게 우승하니가 무척 기뻐요. 마지막 경기라 잘해보려고 했지만 경기가 안 풀려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다 같이 힘내줘서 고맙습니다. 제 공이 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동료들이 열심히 뛰어서 동점골도 넣고 승부차기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문정인 선수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연장 후반 8분 울산 육근혁의 골이 터지기 전까지는 인천 U-15팀 골키퍼 민성준의 날이 되는 듯했다. 경기 내내 민첩한 움직임으로 울산의 슈팅을 모두 차단해냈기 때문. 그러나 육근혁이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자 전세는 역전됐다.

시작이 좋았다. 문정인은 선축에 나선 인천 김진야의 슈팅을 막아냈다. 네 번째 키커였던 김보섭의 실축에 이어 조백상의 슈팅마저 선방해냈다. ‘서든데스’로 치러진 여섯 번째 키커에서는 정우영의 킥을 막아냈다. 그야말로 ‘명품 선방쇼’를 선보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승부차기 전에 골키퍼 코치님이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 몸을 펼쳐서 제스처를 크게 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판단은 스스로 내렸지만 코치님의 말씀대로 잘 따랐던 것이 승리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중에 실점한 부분은 많이 아쉽죠.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동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승부차기에서 좋은 선방으로 이기게 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년 동안 함께 했던 감독님, 코치님, 동료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 글 이보미 기자·사진 강일혁 기자



‘2013 대교 눈높이 중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시상 내역

- 우승 : 울산 U-15팀(현대중)
- 준우승 : 인천 U-15팀(광성중)
- 3위 : 수원 U-15팀(매탄중), 경기 백암중
- 페어플레이상 : 경기 수성중
- 최우수선수상 : 육근혁(울산 U-15팀)
- 우수선수상 : 김진야(인천 U-15팀)
- 특점상 : 전세진(수원 U-15팀), 윤종규(경기 백암중)
- 수비상 : 장재원(울산 U-15팀)
- GK상 : 문정인(울산 U-15팀)
- 최우수지도자상 : 김도균 감독(울산 U-15팀)
- 최우수심판상 : 지승현 심판

‘조성훈 결승골’ 신정초, 부산 U-12팀 꺾고 우승 신정초, 초중고리그 왕중왕전 새 역사 썼다

후반 15분 코너킥 상황에서 조성훈 천금 헤딩 결승골! 부산 U-12팀 1-0 제압
초중고리그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우승 금자탑... 통산 세 번째 ‘최다 우승’ 기록도



신정초가 부산 U-12팀을 꺾고 2013년 초중부 최강의 팀으로 유독 썼다



서울 신정초가 새 역사를 썼다. 2009년 초중고리그 출범 이후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신정초는 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3 대교눈높이 전국 초중 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후반 14분에 터진

조성훈의 결승골로 부산 U-12팀을 1-0으로 제압하고 우승컵을 안았다. 신정초는 2년 연속 왕중왕전 우승과 동시에 통산 세 번째 왕중왕전 우승을 기록하며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경기는 치열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어느 팀의 우위라고 하기도 애매할 만큼 공의 소유권이 계속 바뀌며 치열한 경기를 했다. 전반 9분과 12분에는 서로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지만 아쉽게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두 팀은 이후에도 치열한 중원 경합 속에 주도권 싸움을 이어갔다. 후반에도 경기 양상은 비슷했다. 치열했던 0의 균형이 이어졌다. 그러나 경기 종료를 10여 분 앞둔 후반 14분 마침내 그 흐름이 깨졌다. 신정초 권성윤이 왼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조성훈이 헤딩으로 연결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 분위기는 단번에 신정초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부산 U-12팀은 만회골을 넣기 위해 공격에 무게를 뒀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 특히 경기 종료 직전인 후반 23분에는 오상준이 홀로 페널티박스 안쪽까지 돌파하며 결정적인 동점골 기회를 잡았지만, 그의 오른발 슈팅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결국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면서 경기는 신정초의 1-0 승리로 막을 내렸다. 특히 신정초 선수들은 종료 휘슬과 동시에 벤치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경기장에 뛰어나가 우승을 만끽했다. 반면 우승컵을 놓친 부산 U-12팀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우승을 차지한 신정초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초중고리그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여기에 2009년과 2012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우승으로 초중고리그 통산 최다 우승 횟수도 늘렸다. / 글 김명석 기자·사진 홍석균 기자



신정초 함상헌 감독 / 김명석 기자

신정초 함상헌 감독 “나는 행복합니다”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2013년 초중고리그 왕중왕전 우승컵은 신정초가 차지했다. 2009년 원년 우승과 함께 무려 세 번째 우승. 신정초 지휘봉을 잡은 함상헌 감독 역시 지도자상을 받으며 그 명성을 이어갔다. 신정초는 지난 9일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부산 U-12팀과 명승부를 펼쳤다. 결과는 신정초의 1-0 승리. 후반 14분 조성훈의 헤딩골로 신승을 거뒀다.

“일단 우리 팀 코칭스태프는 8명입니다. 정말 자기 자식처럼 열심히 지도해준 아들에게 먼저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컸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운동해온 아이들과 함께 난관을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보람차고 기쁩니다.”

신정초는 후반 14분 권성윤의 날카로운 코너킥을 조성훈이 헤딩골로 깔끔히 마무리하며 승리를 챙길 수 있었다. 일주일 동안 기울었던 노력이 빛을 발한 셈이다.

“지난 일주일간 코너킥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넣고 이겼어요. 모든 것이 준비한 대로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네요.”

한편 함 감독에게도 부산 오상준의 존재는 위협적이었다. 잠을 설칠 정도로 오상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대다수 지도자가 그 친구는 맨투맨 방식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조직력으로 승부를 걸었죠. 중원을 더욱 탄탄하게 해서 그 친구를 방어했던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왕중왕전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팀들이 나왔기 때문에 매 경기 결승전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승이 더욱 값지고요. 또 특정 선수들이 개인상을 받았는데, 사실 모든 선수가 상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미안합니다.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아이들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 이보미 기자

‘명실상부한 최강팀’ 재확인한 신정초

권역 리그부터 신정초의 기세는 압도적이었다. 서울 남부 권역에서 18전 전승, 86득점, 1실점의 완벽한 성적 속에 우승을 차지했다. 적수가 없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패라는 기록도 달성했다. 덕분에 왕중왕전에 오른 팀들의 지도자들 대다수로부터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선택'을 받았다.

왕중왕전 무대에서 그 기세는 이어졌다. 무원초, 중앙초, 용인FC유소년을 상대로 3골 이상을 넣으며 화려한 화력을 보여줬고, 이호초, 대동초를 상대로는 승부차기 접전을 펼쳤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결국 승리를 따냈다. 부산 U-12팀과의 결승전에서는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채 경기 종료 10분을 남겨두고 조성훈의 결승골로 우승을 차지했다.

신정초는 지난 2월 칠십리배 4강을 시작으로 소년체전 4강, 화랑대기 준우승 등 올해 유독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대회였던 왕중왕전에서 왕좌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초중고리그 최강의 팀임을 재확인했다. / 김명석 기자

‘2013 대교눈높이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시상 내역

- 우승 : 서울 신정초
- 준우승 : 부산 U-12팀
- 3위 : 경기 신곡초, 경기 용인FC유소년
- 페어플레이상 : 서울 신정초
- 최우수선수상 : 김상준(서울 신정초)
- 우수선수상 : 오상준(부산 U-12팀)
- 수비상 : 조성훈(서울 신정초)
- GK상 : 정효재(서울 신정초)
- 최우수지도자상 : 함상헌 감독(서울 신정초)
- 최우수심판상 : 우병훈 심판

신정초 세 번째 우승 이끈 조성훈-김상준

조성훈, 결승전 결승골에 '수비상'까지...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 뽐내
'주장' 김상준은 최우수 선수상, "저를 키워주신 감독님, 잊지 않을래요"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김상준(왼쪽)과 결승골의 주인공 조성훈 / 김원혁 기자

지난해 강현우가 신정초의 해결사였다면 올해는 조성훈이 있었다. 조성훈이 헤딩골을 터뜨리며 결승전을 승리로 장식한 것이다.

신정초는 지난 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부산 U-12팀을 1-0으로 꺾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팽팽한 접전 끝에 후반 14분 권성운의 왼쪽 코너킥을 조성훈이 헤딩골로 연결한 것. 이를 지켜낸 신정초가 결국 2013 초등리그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동료들과 힘을 합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코너킥 연습을 많이 했는데 코너킥 상황에서 골까지 넣을 수 있었어요. 골이 들어가는 순간 감독님께 달려가고 싶었어요."
이하 조성훈 선수

그의 말대로 조성훈은 헤딩골을 터뜨린 후 함상헌 감독에게 달려가 기쁨을 나눴다. 이날 득점으로 조성훈은 왕중왕전에서 네 골을 기록하며 '골 넣는 수비수'로 떠올랐다. 64강부터 세 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던 조성훈은 결국 이날도 물론 골 감각을 자랑하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더불어 조성훈은 수비상까지 수상하며 공수 양면으로 존재감을 뽐냈다.

물론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부산 U-12팀의 주장이자 176cm 장신 오상준의 유연한 드리블 돌파를 막는 데 애를 먹었던 모양이다.

"오늘 오상준 선수에게 좀 당했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만족해요. 오상준 선수는 마치 괴물 같았어요. (웃음)"

한편 신정초 주장 김상준은 조성훈의 선제골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반 내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터진 단비 같은 골이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작년 우승을 지켜본 입장으로서 이번에도 우승을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서 뛰어난 동료들과 지도해주신 감독님, 코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연속 우승을 해낸 것이 무척 감격스러워요." 이하 김상준 선수

"긴장한 탓인지 골 찬스가 있었는데 살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아요. 하지만 골을 넣은 성훈이와 코너킥을 올려준 (권)동윤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마무리해서 정말 기뻐요. 앞으로는 이 친구들을 자주 만나기 힘드니 휴대전화로 연락을 계속하면 좋겠어요. 또 일곱 살 때부터 팀에 있던 저를 좋은 선수로 키워주신 감독님, 잊지 않고 중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보미 기자

오상준, 부산 소년의 눈물



경기후 인터뷰에 임하고 있는 오상준 / 김명석 기자

부산 U-12팀이 우승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왕중왕전 내내 주장 완장을 차고 부산 U-12팀을 위해 땀 오상준은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눈물을 왈칵 쏟았다. 우승컵을 들지 못한 아쉬움과 초등학교 마지막 대회가 끝났다는 섭섭함이 섞인 눈물이었다.

"경기 전에 친구들과하고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승하고 돌아가자는 얘기를 했어요. 경기는 평소 때처럼 잘했는데도 마지막에 저서 아쉬워요."

이날 오상준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0-1로 뒤지고 있던 후반 23분 중앙선 근처부터 페널티 지역까지 혼자서 신정초의 수비를 돌파했다. 마지막 한 명의 수비를 제치고 오상준이 발을 뺀 순간, 경기를 보는 모든 사람은 골을 예감했다. 하지만 젖은 잔디 때문인지 오상준의 발을 떠난 공은 맥없이 상대 골키퍼의 품으로 들어갔다.

"치고 갈 때는 골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잘못 맞았어요. 집중을 못 했죠."

176cm의 큰 키에 주장 완장을 찬 오상준은 부산 U-12팀을 대표하는 얼굴이나 마찬가지였다. 대회 첫 경기부터 골을 기록했고, 경기마다 중원에서 공을 지키고 전방으로 배급하면서 팀을 이끌었다. 오상준은 그런 순간들을 모두 떠올리면서 더 좋은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준우승했지만 저는 그동안 이 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았어요. 또 저희 팀원끼리 화합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하고요. 친구들한테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 감독님과 코치님께는 잘 지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앞으로 개인기를 더 늘려서 외국 선수들한테도 뒤처지지 않는 실력 좋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 김단 기자



부산 U-12팀 정수진 감독 / 이재라 기자

준우승, 그러나 소중한 경험을 얻은 부산 U-12팀



경기후 부산 U-12팀 선수들 / 김원혁 기자

하며 2013년을 자신들의 해로 만들었다.

초등리그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산갈매기 권역의 1위 자격으로 왕중왕전에 진출한 부산 U-12팀의 목표는 우승. 정수진 감독은 왕중왕전 개막을 앞두고 클럽 최강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최강이 되기

위해 왕중왕전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왕중왕전이 시작되자 부산 U-12팀은 그 강력함을 증명했다. 팀의 고공행진을 이끈 오상준, 권민재, 최현빈 등의 공격력은 왕중왕전에서도 통했다. 우승 후보 중 하나인 하남 천현초를 일방적으로 난타하며 여유롭게 64강을 통과했고 이후 마석초, 청남초, 전북 문화초도 제압했다. 준결승에서 경기북동 권역 우승팀인 신곡초를 꺾은 부산 U-12팀 앞에 우승까지 단 한 경기가 남아 있었다.

9일 열린 결승전에서도 후반 14분까지 부산 U-12팀의 우승 꿈은 살아있었다. 그러나 신정초에 통탄의 결승골을 허용하고 종료 직전 오상준의 회심의 슈팅은 골키퍼에 막혔다. 부산 U-12팀의 2013년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총 여섯 경기를 치르는 동안 우리 팀 선수들이 64개 팀 중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결승에서는 졌지만 아이들은 좋은 경기를 했어요. 현재의 우승보다 선수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축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정수진 감독

신정초의 우승으로 초등리그는 약 8개월여의 대장정을 마쳤다. 주말리그와 왕중왕전에서 선수들은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슬픔을 겪으며 성장했다. 부산 U-12팀의 준우승은 선수들의 맘으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우승만큼 값지다. 초등리그에 참가한 모든 팀도 1년간 성장하고 발전하며 웃고 울었다. 정수진 감독의 말처럼 우승만이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아이들이 리그를 통해 꿈을 키우고 즐겁게 축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초등리그 최고의 성과이고, 진정한 목표가 아닐까. / 김단 기자



지난 16일 열린 '대교눈높이 전국 고등리그' 결승전을 끝으로 2013년도 초중고리그의 우승팀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챌린저스리그는 9일 열린 결승전에서 포천시민축구단이 우승을 차지했죠. 이제 22일 열리는 '카페베네 U리그 대학선수권 챔피언십' 결승전이 끝나면 올해의 'KFA리그'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달려온 친구들, 비록 승자와 패자로 승부는 나뉘었지만, 우리를 위해 밝게 웃어준 친구들이 있기에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 박성준 기자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게임! 친구들이아~ 열심히 뛰어줘서 고마워



부산 U-12팀 이겨라~ 관중석을 가득 메운 부산 U-12팀 응원단 (부산 U-12팀 vs. 신정초) / 강일혁 기자



친구가 괜찮나? 상대 선수의 근육을 풀어주는 울산 U-15팀 최지묵 (울산 U-15팀 vs. 인천 U-15팀) / 강일혁 기자



환희와 눈물이 교차하는 순간 (부산 U-12팀 vs. 신정초) / 손춘근 기자



귀중한 선제골을 합작한 후 감격의 골 세리머니 (인천 U-15팀 추민열과 김보섭) / 손춘근 기자



어머나! 다리가 꼬인 채 넘어져도 시선은 공에 고정 (아주대 vs. 경기대) / 박성준 기자



여러분~ 우승컵을 향해 고고! (고등리그 결승전을 빛낸 가수 나비) / 박성준 기자



급하면 발이라도 뺏어야죠~ (동래고 vs. 포항 U-18팀) / 하서영 기자



군인으로 딱 찬 관중석, 포천이 최강이 된 이유 (포천 시민축구단 vs. 파주시민축구단) / 박성준 기자



두 명이 가로막아도 도망갈 틈은 있다! (대동세무고 vs. 청운고) / 하서영 기자



아무리 급해도 옷을 잡지는 말라고~ (포항 U-18팀 vs. 전북 U-18팀) / 서혜민 기자



우왕~ 우승이다! 문정인 골키퍼를 덮치는 울산 U-15팀 선수들 (울산 U-15팀 vs. 인천 U-15팀) / 손춘근 기자



축구장에서 엮어치기? 이건 유도가 아니라고~ (연세대 vs. 한남대) / 서혜민 기자

‘2013 유·청소년 클럽축구 Incheon Airport리그’ 챔피언십 살롬코리아사커스쿨, U-12 우승... 스페인 연수 특전



U-12 우승팀 살롬코리아사커스쿨은 스페인 연수 특전을 받는다 / 홍석균 기자

‘2013 유·청소년 클럽축구 Incheon Airport리그’에서 경기 내용, 전력, 전술 분석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것과 결과에 승복하고 승자를 축하하는 모습이 적어도 이 대회에서는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유·청소년 클럽축구 챔피언십 U-12 결승전이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경기장에서 열렸다. 살롬코리아사커스쿨과 박지성축구클럽의 대결이었다. 승자는 대구를 연고로 둔 살롬코리아사커스쿨이었다. 살롬코리아사커스쿨은 전반 24분에 터진 조성근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점유율은 박지성축구클럽이 더 높았다. 박지성축구클럽은 뛰어난 개인기로 공격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갔다. 살롬코리아사커스쿨은 대부분이 공격 시 전면에 나섰고, 수비 시에는 페널티 박스에 포진하며 안정감에 무게를 뒀다. 박지성축구클럽의 공세가 거셌지만 살롬코리아사커스쿨은 묵직한 플레이로 결국 1-0 승리를 지켜냈다.

승리한 살롬코리아사커스쿨이나 패배한 박지성축구클럽 모

두 최선을 다했다. 매서운 바닷바람에도 두 팀 모두 열심히 뛰었다. 경기 후에는 다 같이 환하게 웃었다. 메달 색깔과 관계없이 이들 모두 승리자였다. 축제의 주인공이었다.

살롬코리아사커스쿨의 김영준 감독은 “5, 6학년이 함께 뛰 수 있는 마지막 대회였습니다. 지도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큰 대회에서 우승해 본 건 처음입니다”라며 기뻐했다.

살롬코리아사커스쿨은 김영준 감독이 2006년에 직접 만들었다. 김 감독은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공부를 했어요. 아이들이 축구선수뿐만이 아닌 다양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우승한 살롬코리아사커스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후원으로 스페인 연수 특전을 받는다. 김영준 감독은 “압박감을 모두 버리고 스페인에 즐겁게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좀 더 넓은 시야를 키웠으면 합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유·청소년클럽축구 U-12 결승전에는 허정무 부회장과 최순호 부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허 부회장과 최 부회장은 결승전을 관전하고 시상식에서 메달을 수여했다. /안기희 기자

ON THE STAND

여고생에게 축구의 묘미를 알려 준 왕중왕전



정해림(왼쪽) 양과 이군 감독관

“아~ 진짜, 찍지 마세요!”

수줍은 여고생은 계속 카메라를 피한다. 감독관은 옆에서 “재미있는 추억이 될 것”이라며 권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인터뷰에 응한 그녀는 거제여 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정해림 양이다.

정해림 양은 옥포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13 대교눈높이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64강전 중 세 경기를 훌륭히 소화해냈다. 그녀가 맡은 임무는 이군 감독관을 도와 경기의 주요 사항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일이다. 각 경기뿐 아니라 장내 이모저모를 통찰해야 하는 감독관의 또 다른 ‘눈’과 ‘손’이 되어준 것이다.

“자원봉사자 교육 때 보조 기록원을 할 사람이 있냐고 물어봐서 그냥 지원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 쉬워요. 금방 익숙해진 걸 보니까 잘 맞나 봐요.”

“축구를 이렇게 오래 본 것은 처음이에요. 은근히 재미있어요. 평소에 축구를 잘 몰라서 안 봤거든요. 감독관님께서 옆에서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주셨어요. 경기 규칙이나 여러 가지 약어 같은걸요.”

처음에는 기록지 속 용어가 온통 생소하기만 했다.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경기 규칙과 용어를 하나씩 익혀가면서 축구도 보이기 시작했다. 초중고리그와 왕중왕전이 매년 개최된다는 말에 관심을 나타냈다.

“경기가 언제 열리는지 알면 또 보러오고 싶어요. 기회가 있으면 다음 자원봉사 때에도 기록하는 일을 할래요. 평소에는 경험해볼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정해림 양은 이날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통진고와 전북 U-18팀(전주영성고)의 경기를 꼽았다. 이유는 승부차기 없이 빨리 끝나서란다. 뜻밖의 대답으로 주변을 웃음 짓게 하였다.

현장에서 값진 경험을 하며 축구의 묘미를 느꼈을 정해림 양. 축구를 매개로 다양한 경험과 재미를 얻을 수 있는 초중고리그와 왕중왕전은 기존 선수뿐 아니라 여러 학생에게 의미 있는 무대이다.

/김동현 기자

황인우의 재활원포인트

전방십자인대 손상 후 재활 ④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전방십자인대(ACL)의 완전 파열은 무조건 수술이 필요하다. 단독 손상일 경우에는 ACL 파열 후 시간이 지날수록 내측 반월상연골판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며, 이후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방십자인대의 재건술 또는 보강술을 시도하여 생역학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다. 수술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현재 많이 시도되고 있는 관절경적 재건 방법은 수술 후 빠른 재활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재건술에 사용하는 이식건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자가건과 동종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가건은 자신의 인대 혹은 건 일부를 채취하여 전방십자인대로 재건을 하는 것이고, 동종건은 제품화되어 있는 사체의 인대나 건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가건은 비용이 들지 않고, 이식 후 면역 반응이나 질병 전파의 가능성이 없으며, 착상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동종건은 수술 시간이 비교적 짧고, 길이나 굵기에 따라 인대나 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는 수술 후 재활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므로 선택은 환자에게 맡기도록 한다. / KFA 의무팀

'2013 카페베네 U리그 대학선수권 챔피언십' 챔피언십 조별리그 4강전 FLACHBACK

'2013 카페베네 U리그 대학선수권 챔피언십'이 강원도 동해시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32개 팀의 정상을 향한 도전. 그 숨 가쁘고 긴박했던 순간을 <KFA리그>가 쫓아가 봤다.

조별리그 2차전 (11월 9일)



광주대에 패배 떨어진 광운대(흰색) // 이세라 기자

강호들의 탈락... 이번의 챔피언십 명백한 우승 후보가 모두 탈락했다. 디펜딩 챔피언 연세대를 비롯해 권역리그 1위를 차지한 상지대와 전통 강호 광운대 등이 모두 탈락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디펜딩 챔피언 연세대는 건국대와의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이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한남대에 패했던 연세대는 2패로 탈락이 확정됐

다. 중부1 권역에서 1위를 거둔 상지대는 조선대와의 경기에서 3-2로 승리했지만 성균관대와 조선대에 골 득실에서 밀려 아쉽게 16강에 진출하지 못했다. 정규리그에서 화끈한 공격력으로 권역 타팀을 압도한 광운대는 조별리그에서 인제대, 광주대에 연달아 패해 2패를 기록했다. 울산대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1승을 챙겼지만 2차전에서는 경희대에 발목이 잡혀 16강에 오르지 못했다. 중앙대, 예원예술대, 전주대도 모두 패했다. 처음 출전한 남부대, 동신대, 경기대도 16강의 벽을 넘지 못했다.

8강전 (11월 13일)

실점 없는 완승으로 장식하다

완벽한 8강전이였다. 네 경기 모두 실점 없는 완승이었다.

4강의 첫 주인공은 홍익대였다. 홍익대는 성균관대를 상대로 1-0 승리를 기록하며 4강행 열차에 가장 빨리 탑승했다. 정재혁이 전반 17분 페널티킥으로 골을 터뜨렸다. 성균관대는 전반반 내내 골 결정력 부족에 울어야 했다. 결국 홍익대는 정재혁의 골을 잘 지키 승리를 완성했다. 호남대는 공격 에이스 정민우가 후반 33분과 34분 연이은 득점포를 신고하며 2-0으로 동의대의 철벽 수비를 허물었다. 정민우는 5골로 득점 경쟁 단독 선두로 뛰어 올라갔다.

영남대는 후반 8분 정대교의 득점을 시작으로 최광수와 정원진이 연이어 득점을 터뜨리며 3-0 완승으로 4강행에 합류했다. 가장 늦게 4강행 열차에 탑승한 팀은 동아대였다. 이주용, 홍현진의 연속골로 송실대를 꺾고 팀의 창단 첫 4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동의대의 철벽 수비를 무너뜨린 호남대 // 서혜민 기자

조별리그 1차전 (11월 7일)



디펜딩 챔피언 연세대(오른쪽)가 한남대에 졌다 // 서혜민 기자

연세대가 졌다고?

디펜딩 챔피언 연세대가 출발부터 삐끗했다. 연세대는 한남대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0-1로 패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의외의 결과였다.

연세대는 지난해 U리그를 평정했다. 단단한 조직력으로 정상에 올랐다. 그러나 올해 챔피언십 첫 경기는 달랐다. 강풍으로 인해 볼 컨트롤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다 할 득점 찬스가 나오지 않았다. 연세대로서는 답답한 흐름이었다.

한남대는 이른 시간에 터진 선제골을 그대로 지켰다. 전반 5분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에 있던 조우진이 헤딩으로 여인연에게 연결했고 여인연이 문전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연세대는 후반전 들어 총력전을 펼쳤지만 이렇다 할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후반 23분 연세대의 김도혁이 페널티킥을 얻어내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한남대 김우성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동점 골에 실패했다.

16강전 (11월 11일)

강호의 승부차기 탈락 '눈에 띄네'

16강전부터는 체력전이였다. 이틀에 한 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이였다. 그래서 승부차기 승부가 많았다. 16강전에서는 강호의 승부차기 탈락이 눈에 띄었다.

홍익대, 호남대, 동아대가 승부차기로 8강에 진출했다. 성균관대, 동의대, 영남대, 송실대는 모두 1점 차 승부로 8강에 합류했다.

올 시즌 중부4 권역에서 경쟁했던 아주대와 홍익대는 경기 내내 불꽃 튀는 대접전을 펼쳤지만 0-0으로 정규시간을 마치고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경기 내내 수세에 몰렸던 홍익대는 슈팅을 세 번이나 막아낸 이영창 골키퍼의 맹활약 속에 승부차기 3-2 신승을 거두며 가까스로 8강에 진출했다. 동아대는 우승 후보 동국대와 1-1로 비긴 끝에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4-3으로 동국에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호남대는 다섯 명의 키커가 모두 골을 넣는 완벽한 승부차기로 경희대를 5-3으로 눌렀다.



승부차기 끝에 승리한 동아대 // 서혜민 기자

4강전 (11월 15일)



동아대를 꺾고 결승에 오른 영남대(오른쪽) // 박성준 기자

냉탕과 온탕 사이

홍익대와 호남대, 영남대와 동아대의 대결로 열린 4강전. 먼저 열린 홍익대와 호남대의 대결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120분을 넘어 승부차기까지 단 한 순간도 안심할 수 없었다.

리드는 호남대가 잡았다. 후반 9분 정민우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호남대의 리드는 꽤 오래갔다. 하지만 막판 뒷심이 부족했다. 홍익대는 후반 45분 김학찬의 극적인 동점 골로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했다.

이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승부차기에 갔고 승부차기에서 홍익대가 5-4로 이겼다. 극적인 역전이었다. 영남대와 동아대의 대결은 영남대의 일방적인 흐름이었다. 전반 41분 최광수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은 영남대는 후반 3분 정대교의 추가 골로 리드를 잡는 데 성공했다. 동아대가 후반 20분 이주용의 골로 추격의 시동을 걸었지만 후반 32분에 영남대 손준호가 썩기골을 터뜨리며 무너졌다. / 안기희 기자

영남대 손준호 “결승전에 모든 걸 쏟겠다”



영남대 손준호 / 박성준 기자

최근 현대 축구는 새로운 유형의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다. ‘후방 플레이메이커’(Deep-Lying Playmaker)다. 수비라인 바로 앞에 위치하며 압박에서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패싱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뽐낸다.

최근 U리그에도 뛰어난 후방 플레이메이커가 빛나고 있다. 포항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공들였고 김병수 감독의 천재성을 흡수

한 영남대의 손준호(22)가 그 주인공이다.

15일 동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3 카페베네 U리그 대학선수권 챔피언십’ 준결승전에서 영남대가 손준호의 맹활약에 힘입어 동아대에 3-1 승리를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날 손준호는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은 물론 팀의 세 번째 골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동아대가 정신력으로 푹푹 뭉쳐서 쉬운 경기는 아니었지만 저희의 스타일을 끝까지 유지했죠. 결국엔 승리하게 되어서 기쁘네요.”

K리그 클래식 포항의 우선 지명을 받은 손준호는 이번 챔피언십이 영남대 소속 마지막 무대다. 포항 U-15팀(포철중)과 포항 U-18팀(포철공고)을 거친 손준호는 포항이 자랑하

는 유스 시스템에서도 늘 주목받던 선수다.

대학 무대에서도 빛났다. 1학년 새내기 시절부터 영남대의 주전 미드필더 자리를 꿰찼다. 빠른 템포의 패싱 게임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영남대의 전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손준호의 넓은 시야와 정확한 롱 패스 능력은 U리그에서 이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저는 팀 승리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팀의 색깔에 녹아들며 제 욕심을 버리고 이기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팀을 위해서 불 배급을 받고 있는 현재의 역할이 가장 재미있어요.”

손준호는 잘나가는 선배들 덕분에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다. 포항이 외국인 선수 한 명 없이 K리그 클래식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바탕으로 상위권에 머무르는 데는 유스팀 출신으로 영남대에서 김병수 감독의 ‘특강’을 받고 온 이명주, 김승대의 활약이 중요했다. 최근 임대를 떠난 신진호(카타르 SC)도 마찬가지다.

“포항 게임을 항상 챙겨보고 있어요. 같은 방을 쓰기도 했던 (이)명주 형과 (김)승대 형 모두 대학 때와 비슷하게 하면서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해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우선 결승전 준비에 모든 걸 쏟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U리그 챔피언십을 제패한다면 이제 프로 무대로 제 눈이 향하겠죠. 영남대 출신임이 자랑스러운 선수가 되고 싶어요.” / 김동현 기자

홍익대 김학찬, “우승하고 프로에 가고 싶어”

최근 축구팬들은 극적인 경기를 두고 ‘극장’이라는 표현을 쓴다. 경기 막판 승부가 뒤집어질 때 느끼는 감정이 마치 한 편의 영화 같다는 뜻으로 쓰는 표현이다. 물론 짜인 시나리오가 있는 영화와 모든 것이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그라운드극장은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의 차이가 있다.

홍익대 김학찬(22)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극장을 만들었다. 경기 막판에 행운으로 우연히 득점한 것이 아니다. 경기 중에 가장 큰 기여도를 보인 선수에게 찾아온 하나의 선물과 같았다. 물론 김학찬이 그 선물을 놓칠 리 없었다.

“마지막 공격이었어요. 제발 하나만 제 앞으로 떨어지라는 생각이었죠. 정말로 기회가 오더라고요. 지체 없이 슈팅을 때렸죠. 골 넣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넣어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까요.”

15일 동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3 카페베네 U리그 대학선수권 챔피언십’ 준결승전에서 홍익대가 호남대와 1-1 무승부 끝에 승부

차기(5 PSO 4)에서 승리했다. 홍익대의 이날 승리가 더욱 값진 이유는 김학찬의 후반 종료 직전 동점골 덕분이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부를 뒤집은 홍익대는 일주일 뒤 원정으로 치르게 되는 영남대와의 결승전을 앞두고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호남대가 쉬운 상대는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가 전반전에도 많이 흔들렸고요. 하지만 이긴 팀이 강한 팀이라는 생각이예요. 결승도 자신 있어요. 무조건 우승하고 싶습니다.”

김학찬은 이날 흥태공과 함께 홍익대의 4-4-2 시스템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김학찬은 정교한 왼발로 볼 배급을 했다. 그의 왼발로 홍익대의 모든 공격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파트너 흥태공은 폭넓은 활동량

으로 빈 곳을 찾아다니며 공수를 연결했다. 서로의 장단점을 커버하는 역할 분담이었다.

“(흥)태공이랑은 사적으로도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경기 중 움직임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호흡이 아주 잘 맞았어요.”

김학찬은 2014 K리그 신인 드래프트에 지원했다. 뛰어난 활약으로 많은 프로 관계자들의 눈에 확인된 만큼 K리그가 될 확률이 높은 상태다. 김학찬도 이번 결승전이 홍익대 소속으로 마지막이라는 각오였다.

“이제 남은 한 경기에 모든 걸 쏟아야죠. 원정을 떠나지만 2년 전에 우승해본 경험이 있는 저희가 우위라고 생각해요. 꼭 우승해서 기쁜 마음으로 프로 무대에 진출하고 싶네요.”

/ 김동현 기자



홍익대 김학찬 / 박성준 기자

동해를 뜨겁게 달군 KFA TV의 '환상콤비' 양동석 캐스터-이다솔 해설위원

공감대 통한 편한 사이... 최고의 시너지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고를 향해 달린다
“다른 중계와는 차별된 중계 선보이고 싶다”



KFA TV의 양동석 캐스터(왼쪽)-이다솔 해설위원

그동안 한국축구는 축구 중계의 역사와 함께했다. 목소리로 느꼈던 당시의 감정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 국내 스포츠 역사상 최고로 꼽히는 ‘후지 산이 무너집니다’라는 이 멘트도 바로 축구 중계에서 나왔다.

90분 내내 격렬하고 많은 감정이 동반되는 축구를 중계한다는 것은 매력 있는 일이다. 요즘 그 매력을 맘껏 뽐내며 주목받는 이들이 있다. KFA TV에서 축구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젊은 콤비, 양동석 캐스터(25)와 이다솔 해설위원(24)을 U리그 챔피언십이 열리는 강원도 동해에서 만났다. 두 콤비는 동해에서 열리는 U리그 플레이오프부터 4강까지 매 라운드 한 경기씩 생중계 중이다.

“친구와 축구 중계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중계하다가 목이 막혀서 물을 마시고 있다면, 이다솔 위원이 알아서 시간을 끌며 한두 마디 더 해줘요. 그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아요.” 양동석 캐스터

“1살 차이로 연령대가 비슷합니다. 공감대가 있고, 사적으로도 친해졌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두세 마디 더 해줄 수 있는 사이라서 편해요.” 이다솔 해설위원

두 콤비는 뛰어난 중계 실력으로 인정받기 전까지 뒤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도, 자신의 역할을 바꿔보기도 했다.

“처음엔 해설위원 공채로 KFA TV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캐스터의 역할이 좀 더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도 캐스터로 성장하고 싶어요.”

“많은 분께서 아직 해설위원으로 불러주시는데 이젠 캐스터로 기억해주시면 좋겠어요. (웃음) 물론 해설위원 당시의 경험과 공부한 내용들이 현재 캐스터로서 중계 역할 분담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상 양동석 캐스터

“저는 원래 축구 기자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SNS에 꾸준히 축구 글을 썼는데 그것을 계기가 되어 추천으로 KFA TV의 해설을 맡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시간이 많다 보니 책을 많이 읽었어요. 2년간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훨씬 다양한 각도로 축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다솔 해설위원

양동석 캐스터와 이다솔 해설위원은 변화 중인 중계 트렌드에 대한 의견도 말했다. 과거 축구 중계가 경기 내용 전달이 우선이었다면, 요즘은 상황에 위트와 전문성이 함께 요구되는 시대에기에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저는 짧은 선수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비선수 출신도 포용할 수 있죠. 이 경험들을 살려 저는 선수, 일반 팬들이 듣기에 거부감이 없는 해설을 하고 싶어요.”

이다솔 해설위원

“저는 시청하는 분들이 계속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는 ‘매력 있는 중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저희가 중계한 U리그, 챌린저스리그, WK리그가 모두 다른 매력이 있듯이 타 중계와는 다른 색다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양동석 캐스터 / 글 김동현 기자·사진 박성준 기자



두 콤비는 중계 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다

‘U리그 도시’ 강원도 동해 6색 경기장 구경 오실래요?



‘2013 카페베네 U리그 대학선수권 챔피언십’ 플레이오프부터 4강전이 열렸던 강원도 동해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U리그 챔피언십을 유치하면서 대학축구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 계곡, 동굴 등 관광 명소들이 즐비한 동해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는 축구팬들로 하여금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U리그 챔피언십은 6개 구장에서 열렸다. 웰빙스포츠타운 전용 1구장과 2구장, 동해종합운동장과 동해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한중대 운동장, 해양경찰서 축구장이다. 각 구장 모두 나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구장은 해양경찰서 축구장이다. 해양경찰서 축구장은 오픈형 인조구장으로 보는 각도와 시선에 따라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언덕에서 경기장 입구를 바라보면 경기장 뒤편으로 보이는 묵호항의 방파제와 드넓은 동해가 인상적이다. 바다를 품은 셈이다.

해양경찰서 축구장은 동해 시민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 동해 지역의 유소년 리그가 펼쳐지기도 하고 생활체육대회, 동해시 행사 등 동해 시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구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 축구장이 바다로 둘러 있다면 웰빙스포츠타운 전용경기장은 멋진 산이 인상적인 구장이다. 특히 가을에는 축구는 물론 산을 활짝 수놓은 단풍도 즐길 수 있다. 일석이조의 효과다.

웰빙스포츠타운은 U리그 챔피언십 46경기 중 22경기가 열릴 정도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 특히 한 장에서 두 경기장을 볼 수 있어 관전하기 편한 구장이다. 본부석을 기준으로 전용 1구장에서 고개만 돌리면 전용 2구장을 볼 수 있고, 전용 2구장에서 고개만 돌리면 전용 1구장을 볼 수 있다.

특히 양쪽 경기장 모두 공식경기를 치를 수 있는 조명탑과 전광판을 갖췄고 1,000석 규모의 깔끔한 관람석도 마련하고 있다.

천연잔디의 동해종합운동장과 보조구장, 대학생들의 젊음을 느낄 수 있는 한중대 운동장까지, 동해의 이곳저곳은 U리그에 참가한 대학 선수들의 패기와 열정으로 수놓아지고 있다. / 이세나 기자

‘Daum 챌린저스리그 2013’ 챔피언 결정전 ‘우리가 최강자!’ 포천, 파주 꺾고 대회 최다 우승



포천은 파주지세의 파주를 가볍게 꺾었다

‘챔결 직행’ 포천, 가파른 상승세의 파주 가볍게 꺾어
안성남-강석구-심영성-서동현 릴레이골... ‘적수가 없다’
2009-2012-2013 ★ 새겼다. 대회 단독 최다 우승 차지



우리가 우승이데!... 챌린저스리그 최강 포천의 환호

역시 최강자였다. 포천시민축구단이 9일 오후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파주시민축구단과의 ‘Daum 챌린저스리그 2013’ 챔피언 결정전에서 안성남, 강석구, 심영성, 서동현의 연속골로 4-0 완승을 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통합 1위로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한 포천은 한 달 이상 실전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탁월한 노련미로 돌풍의 파주를 잠재웠다. 동시에 이번 우승으로 포천은 챌린저스리그 역사상 대회 최다 우승(2009, 2012, 2013)이라는 기록을 썼다.

포천, 안성남 선제골로 리드

포천과 파주는 무리한 공격 시도보다는 상대의 허점을

찾기 위한 탐색전을 펼쳤다. 전반 5분이 지나면서 포천이 공격 템포를 조금씩 올렸지만 호흡이 불안정했다. 파주는 웅크린 뒤 역습을 시도했다. 전반 20분이 지나면서 공격 횟수는 포천이 더 많았지만 파주의 수비진이 압박 수비로 포천의 공세를 끊어냈다. 마무리도 부족했다.

두 팀은 긴 크로스를 이용한 공격을 주로 시도했다. 그러나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경기 양상을 전체적으로 지루하게 만들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노련미였다. 포천은 노련미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지루한 경기 양상을 깨뜨렸다. 전반 35분 안성남이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쪽에서 왼쪽으로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다. 파주 수비수 둘을 제친 안성

남은 침착한 슈팅으로 파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포천, 후반 세 골 폭발

후반 들어 포천은 추가골을 터뜨리며 기세를 올렸다. 후반 5분 심영성이 드리블 돌파로 페널티박스 안쪽으로 침투한 뒤 오른쪽으로 내준 패스를 강석구가 이어받아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추가골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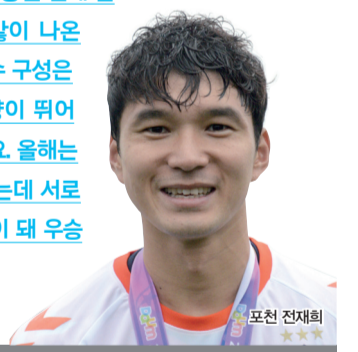
시간이 갈수록 포천은 노련미가 살아났다. 중원 싸움에서 파주를 압도했다. 파주의 돌파에도 수비진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다급해진 파주를 뒤흔들며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포천은 후반 29분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며 승기를 잡았다.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안성남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심영성이 골문 앞에서 직접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파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포천은 남은 시간 동안 선수를 교체하며 여유로운 경기 운영을 펼쳤다. 그리고 후반 추가시간에 서동현이 네 번째 골을 기록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 글 안기희 기자·사진 박성준 기자

최우수 선수상 포천 전재희, “내년에도 우승 노린다”

“지난 1년간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처음엔 쉽게 경기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많이 준비했지만 힘이 들었죠. 하지만 나중엔 쉽게 골이 터졌습니다. 상대가 많이 나오던데요. 지난해부터 선수 구성은 좋았어요. 모두 개인 기량이 뛰어났고 팀워크도 잘 맞았어요. 올해는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왔는데 서로 마음이 맞은 덕분에 한팀이 돼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포천 전재희

포천 인창수 감독, “파주 측면 집중 공략이 성공했다”

“기분이 좋습니다. 내년에도 우승 노리겠습니다.”

챌린저스리그 정상에 오른 포천시민축구단의 인창수 감독이 환하게 웃었다. 포천은 9일 오후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파주시민축구단과의 ‘Daum 챌린저스리그 2013’ 챔피언 결정전에서 안성남, 강석구, 심영성, 서동현의 연속골로 4-0 완승을 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통합 1위로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한 포천은 특유의 노련미를 뽐내며 파주를 압도했다.

공격과 수비 모두 압승이었다. 파주는 포천을 상대로 이렇다 할 실전을 치르지 못했다.

올해 포천에 부임한 인창수 감독은 선수단을 단단히 응집시키



포천 인창수 감독 / 박성준 기자

며 팀을 정상으로 이끌었다. 전임 감독인 이수식 감독이 다져놓은 토양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뻐다. 인 감독은 “선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돌아가신 이수식 감독님이 선수들을 잘 뽑아놔서 우승한 것 같다”며 기뻐했다.

포천의 우승은 철저한 분석이 뒷받침됐다. 인창수 감독은 파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챔피언 결정전을 대비했다. 그는 “파주의 지난주 게임을 봤어요. 선수들의 부상이 좀 있는 것 같았죠. 세트피스도 약했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쓰는데 측면이 약했죠. 그래서 측면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파주가 한 골을 내주면서 급하게 나선 것도 있었죠”라고 말했다.

한 달 이상의 공백은 노련미로 극복했다. 포천은 세 경기 실전을 치른 파주보다 실전 감각이 무뎠다. 인창수 감독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었다.

인창수 감독은 “정규리그 종료 후 공백이 길었습니다. 연습경기를 했지만 실전보다는 덜한 게 사실이죠. 파주는 세 경기를 치르고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공백이 길었던 탓에 초반에 고전을 했습니다. 리듬을 타는 게 다소 늦어지면서 초반에 힘든 경기 펼쳤죠”라고 밝혔다.

챌린저스리그 최다 우승의 기록을 쓴 인창수 감독의 시선은 벌써 내년을 향하고 있었다. 인 감독은 “우리는 정규리그가 끝나자마자 우승을 목표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우승을 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 안기희 기자

플레이오프 되돌아보기... '매 순간 긴박했다'

'Daum 챌린저스리그 2013'이 포천시민축구단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정규리그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쏟아낸 챌린저스리그는 정규리그 종료 후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여러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팬들을 즐겁게 했다. 6강 플레이오프부터 챔피언 결정전까지 긴박했던 순간들을 <KFA리그>가 되돌아봤다. / 안기희 기자

6강 플레이오프 : 이천 2(4PS05) 경주, 청주 1-3 파주



청주(왼쪽)와 파주의 6강 플레이오프 / 서혜민 기자

원정팀이 나란히 승리했다. 경주는 이천 원정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경주는 전반 37분 이호세, 후반 12분 정세환의 연속골로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이천은 후반 17분 정준영, 후반 32분 이진용의 골로 균형을 맞췄다.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승부차기에 돌입했고 결국 5-4로 경주가 웃었다.

파주는 조재석의 맹활약이 돋보였다. 후반 12분과 후반 43분에 두 골을 터뜨렸다. 파주는 후반 20분 장길영의 골을 묶어 후반 35분 김형필이 한 골을 만회한 청주를 꺾고 4강 플레이오프에 올랐다.

4강 플레이오프 : 파주 1-0 경주



파주(녹색)와 경주의 4강 플레이오프 / 박성준 기자

프리킥 한 방이 승부를 갈랐다. 파주가 홈에서 경주를 1-0으로 꺾고 준결승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두터운 미드필드진의 빌드업으로 볼 점유율에서 앞서나간 파주는 수비를 두텁게 구축한 경주를 상대로 맹공을 펼쳤다. 그리고 전반 42분 아크 왼쪽 부근에서 얻은 프리킥을 조재석이 골대 먼 쪽으로 향해 직접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다.

조재석은 6강 플레이오프 청주전 두 골에 이어 4강 플레이오프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진정한 해결사로 거듭났다. 경주는 반격에 나섰지만 파주 수비진의 집중력을 뚫지 못했다.

준결승 플레이오프 : 파주 2-1 화성



화성과 파주의 준결승 플레이오프 / 박성준 기자

앞선 두 경기의 승리로 상승세를 탄 파주의 기세가 준결승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어졌다. 파주는 신생팀 파워로 준결승 플레이오프에 오른 화성마저 2-1로 꺾었다. 선제골은 전반 20분에 나왔다. 화성의 역습 상황에서 김찬양이 볼을 커트했고 파주의 장길영이 원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했다.

화성은 후반 3분 김호기가 프리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후반 25분 에이스 조재석이 중거리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승리했다. 조재석은 플레이오프 3경기 연속 결승골을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최고의 사나이로 거듭났다.

챔피언 결정전 : 포천 4-0 파주



포천(왼쪽)과 파주의 챔피언 결정전 / 박성준 기자

하지만 파주의 거침없는 상승세는 포천이라는 산을 넘지 못했다.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에서 파주는 0-4로 무너졌다. 포천의 안성남, 강석구, 심영성, 서동현이 연속골을 터뜨렸다. 한 달 이상 실전이 없었던 포천은 노련미로 파주를 완벽히 제압했고 체력적인 문제가 겹친 파주는 이렇다 할 플레이를 펼치지 못하면서 아쉽게 돌아섰다.

포천은 챌린저스리그 역사상 대회 최다 우승이라는 신기록을 썼다. 2009년과 2012년 그리고 2013년이다. 이전까지 경주와 각각 2회 우승씩을 기록했었다.

이천시민축구단, 우승만큼 값진 페어플레이팀상 수상

우승은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팀의 목표다. 모두가 우승을 향해 달린다. 그런 의미에서 페어플레이팀상은 의미가 깊다. 비록 우승하지 못했더라도 정당당하게 달렸다는 과정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Daum 챌린저스리그 2013'의 페어플레이팀상은 이천시민축구단이 받았다. 이천은 통합 4위에 머물렀지만, 이 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우승 못지않게 특별한 상입니다. 이 상은 누구 하나가 잘한다고 해서 받는 상이 아닌 팀 전체가 잘해서 받은 상이죠. 한 시즌 동안 매너 있게 페어플레이를 보여준 선수들에게 고맙습니다.” 이하 이천시민축구단 임관빈 주무

페어플레이팀상은 칭찬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스포츠맨 또는 팀에 주는 상이다. 모든 리그가 마찬가지겠지만 챌린저스리그에서도 한 시즌의 경기와 퇴장의 개수를 종합 산정해 페어플레이팀을 선

정한다.

이천시민축구단은 이번 시즌 챌린저스리그에 참가한 19개 팀 중 가장 적은 경고 수(퇴장포함)를 받았다. 한 시즌 동안 총 24개의 경고를 받았다. 이 수치는 59개의 경고를 받은 중랑코스무스탕에 비해 35개나 적다.

특히 이천시민축구단은 서울유나이티드, 화성FC와 함께 유일하게 퇴장이 없는 팀이다. 공정하고 매너 있는 경기를 선보였다는 뜻이다.

“우리 팀은 고참 선수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경기 중에도 고참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을 잘 이끌어주었죠. 파울 상황에는 왜 이렇게 된 거지 설명해줍니다. 그 덕에 어린 선수들도 이제는 페어플레이가 몸에 배어있어요.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우리 팀이 페어플레이팀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천시민축구단이 페어플레이팀상을 받은 건 이



이천시민축구단 / 이세라 기자

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과 2011년에도 페어플레이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구단 측 역시 선수들에게 좋은 공격력과 함께 항상 '페어플레이'를 강조한다.

“내년에는 우승과 함께 페어플레이팀상 모두 받고 싶습니다. 특히 정당당하고 멋진 승부로 서 타 팀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기희 기자

